

# '2006 올해의 환경인 상' 시상식

## 이상호 회장, 이경재 의원 수상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이상호 회장은 수년간 환경단체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환경인의 위상 강화와 환경정책 대

안제시 등 환경보전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이 회장은 환경관련 학과 졸업생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과 역할을 다각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이들에게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수십 차례 환경기술인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환경부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산업폐수관리체계 개선방안 등을 심의했으며, 산·학 협력체제 구축, 환경관리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다양한 세미나 개최 등 환경보전을 위한 일이라면 늘 앞장서는 진정한 환경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전문기자회(회장 박성열)에서는 '2006 올해의 환경인'을 선정,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의 환경인으로 선정된 이경재(한나라당, 인천서구·강화을) 의원과 이상호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장, 박성열 환경전문기자회장을 비롯한 환경전문기자과 환경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전문기자회(이하 기자회)에서는 환경분야를 총망라해 1년간의 업적에 대한 심의·평가를 거쳐 매년 '올해의 환경인 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도 여러 후보들이 거론된 가운데 기자회견에서 열린 논의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경재 의원과 이상호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장이 선정됐다.

이상호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장은 예상치 못한 수상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환경기술의 발전과 연합회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 환경전문기자회에서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하고 기자회견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 회장은 또 "경제적인 이익도 창출할 수 있어야 환경도 지키고 환경분야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미래는 환경의 시대로 환경이 미래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적극적인 환경정책 개발 의지를 밝혔

# 2006 올해의 환경인 상 시상식



▲ 이상호 회장(좌)과 이경재 의원(우)의 기념촬영 장면

다.

이경재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먼저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모습만 너무 많이 보여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입을 연 후 “지금까지는 오직 환경보호 쪽으로만 치우친 목소리가 컸다면 미래에는 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환경과 개발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올해의 환경인상과 함께 올 한해 기자회견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환경관계자 가운데 이덕호 환경관리공단 홍보지원실장과 이성달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장, 환경부 정책홍보담당관실 조용철씨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한 기자회견 발전에 힘을 실어준 권병창 환경시사일보 편집국장을 비롯해 에코저널 이정성 대표기자, 환경포커스 신미령 발행인, 일간환경 이미화 발행인, 중앙산업신문 오인환 기자, EBN 김홍군 기자 등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시상식 이후에는 2006년 한해를 마감하며 ‘환경전문기자회 송년의 밤’ 행사도 가졌다. ◀

▶이경재 의원은 '06년 한해 동안 환경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제17대 국회 상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



원장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 대표위원으로 환경정책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반기에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정책개발은 물론 2006 국감에서 환경현안문제를 놓고 송곳 같은 질문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